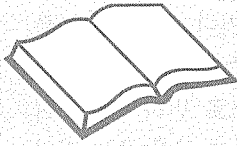


◎ 도서관이 알아야 할 출판과 책 이야기 - 2 ◎



고서와 나누는 영혼의 대화

한미화씨를 이어 이번 3월호부터 최성일 씨와 함께 “도서관이 알아야 할 출판과 책 이야기” 지면을 맡게 된 김준목 씨는 1991년 무역업종사와 더불어 고서수집을 시작한 이래, 2001년에는 서양고서 전문사이트 안띠꾸스 (www.antiquus.co.kr)를 개설하였으며 최근 인문학 교양잡지 <안띠꾸스>(2005년 2월 창간, 격월간지) 주간으로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저서로는 『감각의 순례자 카사노바』(2002) 등이 있다. ■ 편집자 주



김준목*

내게는 소중한 외국친구가 있다.

로마 테르미니 기차역 앞에서 몇 권의 고서를 가판대에 깔아놓고 한 손엔 담배와 다른 한 손에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린다. 그는

현 책 속에서 먼지를 먹으며 초라하게 사는 듯 보이지만 그의 주변엔 늘 문화와 학문을 앞서서 이끄는 훌륭한 지인들이 몰려온다.

어느 날 이국 멀리에서 온 한 동양청년에게 그는 귀하디 귀한 성경책을 내어주며 말했다.

‘내가 너에게 한 권의 책을 팔 때, 단지 종이와 잉크를 파는 게 아니다. 난 네게 한 생명체를 파는 것이다.’

그날부터 나는 희귀본을 찾아 내 어렵사리 수집할 때마다 그 고서를 한 생명체를 옮겨오는 것처럼 조심했고 그 생명을 잘 유지하려고 애썼다.

그리고 지나 온 몇 백년 세월을 보여주듯이 색이 바래고 연약해진 한 권의 책에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주기 시작한다.

무엇을 담고 있는 책인가 들여다보고 읽어보고 어디서 생겨나서 무슨 가치로 이렇듯 오래사람들의 손에서 귀히 보존되었나를 찬찬히 알아낸다.

그러면 어느덧 고서의 품위를 느끼게 되고 지니고 있는 지식의 생명력에 압도된다.

무지한 내가 아주 오래 전 누군가가 남긴 책을 두고 영혼의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신비롭고 매력적인 그의 존재에 대해 알아가는 것은 나의 정신세계가 유식해짐은 물론 감성을 더 풍요롭게 하는 나의 오락이 되어 버렸다.

그 오락에 심취해 살아온 10년은 누가 뭐래도 내겐 행복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한다. 내가 찾아 낸 나의 행복은 주위에서 조차 이해 못하는 쓸데없는 것이었는지 몰라도 만일 내가 고서와 함께하는 나의 취미가 없었다면 나의 젊은 날은 첨단기기를 파는 일들로 약간의 부를 남기고 흩어져 버렸을 시간이다.

늘 새로운 것을 찾아 안테나를 세우는 비즈니스의 피곤함을 견디어 내는 것이 생활의 안정 이외에 무엇을 주었던 말인가... 미래를 볼


* <안띠꾸스> 주간, joonmok2000@yahoo.co.kr

수 없는 버거운 달리기였음을 고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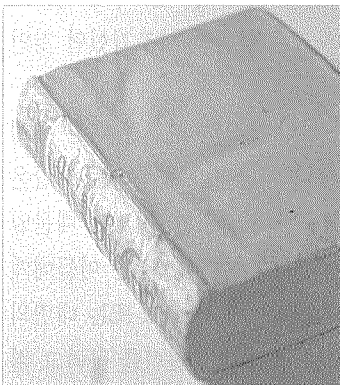
이젠 나는 옛 것의 성찰을 통한 새로운 미래의 좌표를 열어가는 인문 교양잡지 《안띠꾸스》의 편집주간이라는 영광스런 망토를 걸치게 되었다. 실로 감개무량하다.

지금까지의 기쁨이 고서와의 대화를 통한 나만의 행복이었다면 이제 나는 그 행복을 책을 사랑하고 옛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자 한다. 아주 오래 전 위대한 사람들의 기록물과 그들의 사상을 통해 이 역사의 공원길을 더 많은 사람들과 거닐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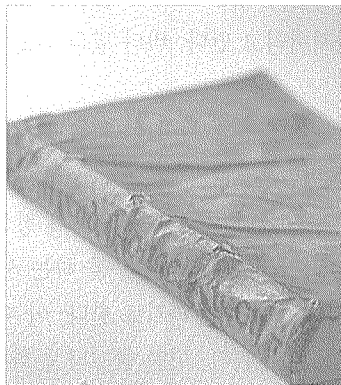
“가난한자는 책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고 부자는 책으로 말미암아 존귀해 진다.” 고 하지 않는가.

영혼의 창고를 지키는 사서 분들과 대화의 장을 만들어 주신 《도서관문화》에 감사를 드리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재 하고자 한다. 미천한 본인의 지식과 경험이 책과 함께 희망을 열어가는 사서 분들에게 고서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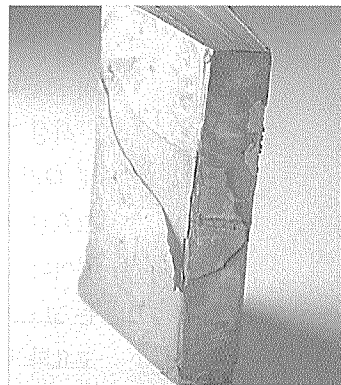
1. 책의 역사 <책의 기원에서 중세까지>
2. 책의 역사 <구텐베르크, 역사의 혁명가>
3. 역사상 위대한 책 수집가 <고대의 수집가>
4. 역사상 위대한 책 수집가 <르네상스에서 근대까지>
5. 책의 보관 및 수리방법
6. 영혼의 창고지기 고서적상 이야기
7. 불멸의 도서관



<제목미상. 1660년도 로마에서 출간된 책으로 키케로를 포함한 8명의 고대작가의 글을 모아 놓은 책. 이 책 내용 중 키케로가 딸의 죽음을 애도하며 쓴 글은 고전을 총망라한 하비드로웹 라이브러리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1755년 나폴리에서 출간된 책으로서 당대의 명의 리카르투스가 의학용어를 정리하여 만든 사전>



<1620년 독일에서 나온 당시 군주의 예절법규 교본>